

LGU+ 이어 SKT도...통신요금 거품 빠질까

통신사 요금제 개편 잇따라 5G 고객 선점 전략인 듯 소비자 "기본료 폐지가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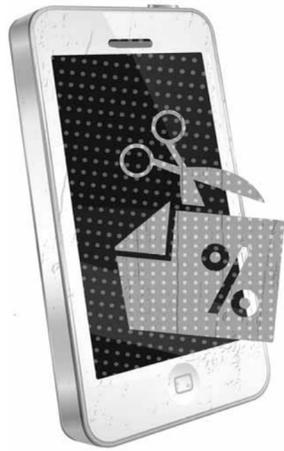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대대적인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개편은 내년 5G 상용화와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 대응 등 여러 계산이 깔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고가요금제에서 기존보다 데이터 제공량 등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KT가 LG유플러스와 같이 속도, 용량 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KT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동통신사 요금제 개편의 신호탄은 이동통신



신 3위 LG유플러스가 왔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LTE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월정

액 8만8000원대의 요금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40GB까지 가족끼리 나눠쓸 수 있게 해 고객 유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도 대대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우선 약정 기간의 절반을 채우면 남은 약정이 줄어들수록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약정제도를 개편했다.

SK텔레콤은 로밍요금제와 일반 요금제도 손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지만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개편은 5G 상용화 이전에 고객 기반을 최대한 넓히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내년 5G가 상용화하면 기존 LTE 가입자가 5G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TE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는 계산도 작용했다.

더욱이 5G의 뚜렷한 수익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망 투자에 나서야 하는 이동

통신사들은 당장 수익을 올려줄 가입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을 덜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이동통신사가 거세게 반대하는 보편요금제의 경우 정부가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시장에서 나온다면 범제화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자율적인 요금인하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는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련의 요금제 개편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 요구는 외면한 채 요금제 개편에 매달리고 있다. 실제 혜택도 고가요금제에 집중되거나 부수적인 수준에 그쳐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이폰 손배소 원고인단 구성 6만3800여명 국내 최대 규모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원고인단이 꾸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전날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 위임 절차를 마감한 결과 6만3879명이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애플이 성능 저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당시 원고인단이 5만5000명이었는데 이번 소송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라며 "증거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누리는 애플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 방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을 인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국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애플이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일으킨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해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127억7000만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1층에서 7일 한 시민이 안내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스퀘어 제공>

"로봇에게 유스퀘어 안내서비스 받으세요"

유·스퀘어(사장 김현철)가 16일까지 유·스퀘어 안내로봇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스퀘어 안내로봇 애디(ADDY)는 원익로보틱스가 개발하였으며, 아시아나 IDT는 서비스 모델 및 콘텐츠 개발과 컨설팅을 수행했다.

유·스퀘어 안내로봇은 자율 주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라이다 센서(LIDAR)와 비전센서 등을 탑재하여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며, 가감속 제어 시스템으로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한다.

또 하단의 4면의 LCD 디스플레이와 상부(헤드)의 음성인식 및 터치기능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유·스퀘어 내 주요 시설 및 매장 안내, 문화관 행사, 프리미엄 버스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디(ADDY)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1층 대합실 주변을 자율주행하며 고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고객이 유·스퀘어 내 원하는 매장을 찾으면, 매장의 위치와 경로 등을 알려

주고 직접 안내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로봇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촬영, 남도한바퀴 등 원하는 여행코스도 요금을 상세히 안내해주는 여행안내 등 유용하고 재미있는 기능도 선보인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유·스퀘어에서 안내로봇을 시범 운영하게 된 만큼 많은 분들이 재미있고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더 나은 스마트 터미널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중국 우주선 어디로 추락할까?

4월 초 대기권 진입 예상

중국 최초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天宫) 1호는 과연 지구 어느 곳에 추락할까?

텐궁 1호는 중국이 2011년 9월 화성에 보낸 탐사선이다. 무게 8.5t, 길이 10.5m의 텐궁 1호는 몇 주 내 지구로 진입해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계 '에어로스페이스코퍼레이션'(AC·Aerospace Corpora-

tion)은 텐궁 1호가 열두 다음 달 첫째 주 대기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텐궁 1호 잔해는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 사이에서 추락할 것으로 AC는 예상했다. 이렇다면 중국 북부와 중동지역, 중부 이탈리아, 스페인 북부, 미국 북부, 뉴질랜드, 호주 태즈메이니아, 남미와 아프리카 남부 지역 추락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중국 유인 우주선 발사 장면. /연합뉴스

영화 50편 1초에 보내는 광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고화질(HD)급 영화 50편을 1초에 보낼 수 있는 광 송·수신 기술을 내놨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위한 초당 400기가비트 급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광 송·수신 부품은 크게 두 가지다.

초당 400기가비트 급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수신하는 소자와 전기적 신호를 광통신망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파장 가변 광원 소자 등이다.

연구진은 핵심소자를 직접 만들고서 이를 광 모듈에 집적해 초소형 부품으로 구현했다.

크기는 각각 광 수신 소자 3cm×1cm, 광 송신 소자 2cm×1cm다.

광 송·수신을 위한 부품은 그간 외국 산을 조립해 만들어 써 왔는데, 이를 국산화한 것이라고 ETRI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전달망은 초당 100기가비트 안팎이었는데, 이를 초당 400기가비트까지 끌어 올렸다.

광케이블이 깔린 네트워크 고속도로를 기존 대비 4배 크게 확장한 개념이라고 ETRI는 덧붙였다.

상용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연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은 전송확인을 위해 지난달 대전 유성구 연구원 내 4동 실험실에서 신

호 생성기를 통해 전기 신호를 만들었다.

이 신호를 빛에 실어 광섬유망을 통해 서울까지 보내고서 다시 대전까지 왕복으로 전송했다. 왕복 시험 거리는 총 510km에 달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미래 네트워크 선도 시험망(KOREN)을 이용했다.

ETRI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광케이블 포설 없이 광 송·수신 장비 교체만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송 용량을 변경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바꿀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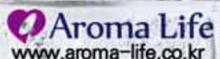
김종희 ETRI 광통신부품연구그룹장은 "실리카나 폴리머 등 저가형 소재를 사용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데이터 용량을 부품 교체 없이 기존 광케이블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 플렉시블 광노드 핵심기술 개발 지원으로 이뤄졌다.

국내·외 특허출원 17건, 과학기술은 문인용색인(SCI) 급 논문 11편, 광 부품 제조업체 등 기술이전 7건 등을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3년 안에 초당 1테라비트급 전송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하는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